

# 한국출판의 새 환경과 새 조건

## 1990년과 1991년의 사이에서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20세기의 마지막 년대를 시작했던 1990년은, 우연이긴 하지만 출판문화에 있어 대단히 인상적인 해로 기록될 수 있다. 무엇보다 출판이 그 자신을 개선하거나 전환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새 환경과 새 조건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첫째가, 거의 불가능해보였던 문교부의 공공도서관업무가 문화부로 이관케 되었다는 사실이다. 새로 마련된 도서관진흥법은 중요한 두가지 지향을 갖고 있다. 그 하나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국민적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서관업무와 인접한 출판진흥정책 및 저작권보호와 함께 문헌과 정보에 대한 종합정책을 수립해가겠다는 것이다.

이 두 지향은 물론 도서관의 시야에서 정리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출판의 시야에서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서면 어떤 것이 되는가. 첫째 출판물과 독자와의 관계에 있어 도서관이 보다 중심적이며 강력한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일찍이 모든 나라에서 출판사는 그 1차소비자를 공공도서관으로 설정해왔다. 국민들은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책을 자유롭게 충분히 빌려 볼 수 있고, 국민이 직접 시장에서 사 드는 책은 단지 기능적으로 상세해야 되는 책이거나 아니면 베스트셀러 영역의 것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구조에도 조건은 있다. 즉 아무책이나 책만 나오면 도서관이 사서 국민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간행된 모든 책은 물론 收書가 되어야 하고 보관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이 역할은 중추적인 도서관 한 곳이면 충분하다. 한 곳 이외의 모든 공공도서관은 그러므로 국민이 읽어 정신적 교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명한 성격과 가치를 가져야 한다. 볼 만하고 권할 만한 책만을 收書하고 또 이것만을 전달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책임이다.

### 도서관진흥법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볼 때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는 곧 출판물의 진정한 질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간행하고 있는 책들은, 그 내용이나 제작수준이나, 또는 의미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평균적 質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인가라

는 좀더 진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것이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또 하나의 지향.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성도 도서관의 문화적 수용양식에 있어 도서관의 지위를 새롭게 정립하게 한다는 조건이 된다. 사람들은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여타 문화장르들과 더불어 도서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선택의 가능성은 구식 미디어에 있지는 않다. 이 경우에도 역시 출판은 비록 구식 미디어이기는 하지만 그 미디어로서의 고품위 창조로서만 존립이 가능하다. 그저 평균적인 대중시장의 기호나 취향에 맞추어, 또는 사상적 경향에 맞추어 일시적인 장난감이나 아이스크림 팔 듯이 만들어 팔 수 있었던 지난 시장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입지가 된다는 점을 좀더 유심히 전망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언제 공공도서관 진흥이 현실화될 것이냐 라는 견해를 내놓을 수는 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견해가 있다면 이 견해는 보다 큰 다른 환경조건을 또 보아야 한다. 공공도서관 조건 정도가 아니라 뉴미디어의 확산과 가속화라는 현실이 별도로 있다.

뉴미디어의 개념은 아직 우리에게서 분명치 않다. 무엇보다 불분명한 것은 뉴미디어가 언제쯤 우리에게서 현실적 상황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다. 모두들 앞으로 오겠지 할 뿐이다. 그러나 이미 와 있는 것이 뉴미디어이다. 비디오 부문에서 오늘날 셀러리맨의 95%가 이를 생활의 일부로 즐기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 있다. 유선방송은 또 어떠한가. 올해에 유선방송은 시작된다. 다시 정리해서 케이블 텔레비전, 직접 위성방송, 비디오, 텔레텍스트, 고품위 텔레비전,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화, 새로운 화상전화 등이 결국 모든 문화미디어들의 입지와 위상을 바꾸게 할 뿐 아니라 그 나름대로 새로 결합된 새 미디어로서의 轉身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 뉴미디어가 출판에 끼칠 영향

전산체제만 해도 이미 출판의 제작과정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판매형식도 바꾸고자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전자서점은 우리에게서 지금 마치 그림처럼만 느껴지고 있지만 사실은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입에 분명하다.

이 환경에서 가장 중시할 포인트는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서목록별 판매량이 아니다. 예컨대 백과사전이나 콘사이스는 컴퓨터자

**고급문화라는 표현이**

**아직도 의미있는 것이라면**

**고급문화의 핵심은 출판이다.**

**이제 한국출판은 본격적인 출판문화의**

**거대하면서도 섬세한 청사진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에 있다.**

**우리의 발전상황과 사회적 필요는**

**출판이 더 이상 '옛 자리'에**

**안이하게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료로 충분하다든가, 소리와 영상을 담은 테이프 책을 만들면 될 것 아닌가라는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다 유심히 보아야 할 측면은 수용자의 수용역량이다. 일찍이 책의 수용능력을 키운 독자라면 뉴미디어 앞에서도 곧 순진하게 뉴미디어 속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오히려 정보화사회 속에서 기능화되는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보다 반발적인 구식미디어의 요구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출판물판매액은 연간 20억달러씩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이렇게 변화되며 새로운 균형을 이루어나갈 삶과 정신의 창조역량을 바람직하게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의 베스트셀러 목록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마다 베스트셀러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지난 10년 이상 이 베스트셀러의 기본내용은 가벼운 수필류, 감상적 시집류, 아동용어로 씌어진 寓話類, 그리고 정치폭로적 논픽션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쁘게 진전되어 최근 2~3년간에 어린이들이 직접 쓴 책들과 코미디형 개그형 잡담집들까지 베스트셀러 목록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뉴미디어시대에 뉴미디어를 보다 균형있게 수용할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도서내용의, 보다 본질적인 질의 향상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보면 뉴미디어는 여전히 그저 제작방법을 일부 개선하며 도와주고 있는 구조 이상의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점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책의 존재가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새



이중한씨.

정보화사회 속에서 인간성을 유지하며 새 인간적 창조력을 상징하는 결집체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책의 간행은 그 출발점 자체를 크게 전환시켜야 할 필요까지 있다. 즉 책은 책 그 자체로써 불변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념이 출판문화의 보편적 신념으로 지금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것인지, 적어도 그것이 출판인들의 영역에서나마 가능한 것인지를 새롭게 自問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출판이 문화'산업'이어야만 하는 까닭

이러한 본질과 내용에서만이 아니라 이 새 환경조건들은 책의 유통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90년의 사실에서 우리가 또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전국 4천7백여 서점중 2천여 서점이 동참하여 이루었던 경남북지역서적상의 집단 휴업사태이다. 이는 마진을 조정문제이거나 또는 연금매장 등 유사공체조합의 서적할인판매 반대쯤으로 이해되기가 쉽다. 그러나 실은 보다 근원적인 판매의 한계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날이 출판량은 늘지만 나날이 서점매장은 줄고 있고, 또 판매량도 늘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오늘날 평균적인 서점은 그 서점의 판매량이나 판매방법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아직은 이를 판매마진울쪼므로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출판사 역시 현존하는 서점과의 타협이나 아부로 출판사를 유지해 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지만 이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를 어떤

증거로 찾기는 어렵다. 유통체계의 개편이 출판계의 30년대 숙원이긴 하나, 이 역시 70년대의 조건과 80년대의 조건이 다르고 90년대에는 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90년대에는, 만일 90년대에 맞는 형식을 우선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출판사가 직접 독자의 주문을 컴퓨터 스크린으로 받아내고 또 직접 우편으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유통체계 역시 이 제도를 전제로 조직이 되어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책의 선전체계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신문광고쯤으로 책을 전달하기는 어려운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TV화면을 쓰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독자의 정보취득방법도 달라진다. 결국 컴퓨터를 통한 책소개 정보채널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적 대응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누가 지금 이 큰 틀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지는 물론 알 수 없다.

출판은 이제 구멍가게 수준을 뛰어넘는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출판은 산업으로서의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문화산업이란 용어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그 개념은 아직 50년의 일천한 역사속에 계속 정리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긴 하나, 복제를 통한 전달의

확대를 지향하는 모든 문화내용물을 산업적으로 파악해 보자는 관점은 이제 부정할 이유가 없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설 때 우리의 출판은 지금 산업적 기능이나 또는 산업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보다 정면으로 나서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말할 때 경제정책 결정자, 산업체, 산업분야들이 취하는 기본적인 전략과 원칙은 전략의 목표, 한계, 수단을 모두 고려하고 어떤 근본적 변수도 누락 내지 간과하지 않았을 때에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평범한 일반적 원칙에서 오늘날 출판은 그 어떤 요소 하나나 고려한 적이 있는가, 고려는 해보았는가, 물론 반문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저 열심히 좋은 책을 내고, 책은 안팔렸지만 그 긍지감만으로 자위하는 출판행위는 또 오히려 업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험적으로 던져 보았다가 어쩌다 시장에서 성공하면 또 모두 서로 비슷한 것을 집중적으로 내보고, 그리고는 같이 주저앉은 몽매한 행위에 더 속달돼 있는 것이 바른 평가일 것이다.

#### 출판이 여전히 고급문화의 핵심이 되려면

하지만 이 형식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까를 이제는 생각해야 한다. 출판계는 보다 본질적인 조직적 기능을 만들어야 하고, 또 이를 통해 정책적 지원도 더 체계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같이 산만하고 막연한 요구로서의 출판지원은 실제로 지원을 받더라도 전혀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

예컨대 전체목록에 있어 균형있고 質의인 목록을 출판을 위해 마련하고, 출판현장에서는 공동목표를 정해서 출판을 진행시킬 수도 있다. 더 나아가다면 교육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읽기능력'과 책의 수요를 창출하는 일까지 해야만 한다. 그리고 생산 역시 뉴미디어 속에서의 생산체제로 전환을 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기간시설들의 개선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 하고 또 이는 출판이 그저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그 판매로 분명히 갚는다는 보증도 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우선 작은 항목들로부터도 저항과 혼란을 받을 수 있다.

그 하나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대표과제로 등장해 있는 지적 소유권, 저작권들과의 마찰 확대이고 또 하나는 ISBN제도와 같은 도서유통·서지정보 전달에의 진입지연이다. 이 항목들의 표면적 문제들은 쉽게 보인다. 번역하지 않고, 세계적 정보망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뿐이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보면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기본적인 지적 체면에 취약성이 드러난다. 우리는 그저 남의 정보만 소수가 조금씩 얻어쓰는 나라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계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삶의 질적 향상이란 과제가 또 따로 있다. 세계 유수의 나라들이 모두 미래에 대응하는 교양교육을 새롭게 구성해보고 있다. 이 구성속에 아직도 기간적으로 쓰이는 매체는 도서이다. 한국출판의 국민을 위한 교양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책임은 변함없이 있는 것이다. 고급문화라는 표현이 아직도 의미있는 것이라면 고급문화의 핵심은 출판이다.

출판은 이제 대단히 본격적인 출판문화의 마스터플랜을 세워볼 때에 있다. 개별적인 출판의 창조만으로 출판문화를 형성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전의 상황과 사회적 필요는 그 수준의 시점에 있지 않다. 출판 자신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있다.

도서출판 산하에서 새롭게 기획한 아동문고 산하어린이

## 서울로 간 허수아비

“엄마 아빠,  
이런 동화를 들려주세요.”

TV 보지 마라 오락실 가지 마라……  
호기심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뭐든 하지 말라고 딱달하는 어른보다  
여기 훈훈한 삶의 이야기 한 편을  
건네주는 어른이고자 합니다.  
선생님된 마음, 부모님된 정성으로  
퍼내는 산하어린이는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직접 골라주는 책입니다.



농사를 짓는 윤기현씨의 창작동화집. 자신의 몸을 던져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 한 허수아비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산하어린이는 10권까지 나왔습니다.

-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창작동화집)
-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상 역사이야기)
- 3 **임꺽정과 일곱형제들 1** (김우일 역사이야기)
- 4 **임꺽정과 일곱형제들 2** (김우일 역사이야기)
- 5 **임꺽정과 일곱형제들 3** (김우일 역사이야기)
-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창작동화집)
- 7 **전태일** (위기철 인물이야기)
- 8 **장준하** (정희수 인물이야기)
- 9 **하느님의 눈물** (권정생 유년동화집)  
《몽실언니》의 작가 권정생씨의 창작동화집.  
저학년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림동화.
-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생활이야기)  
현직 교사였던 저자가 아이들과의 생활체험을 중심으로 엮은 편지글 모음.

각권 값 2,500~3,000원/230쪽 내외/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산하 마포구 아현2동 338-10  
전화 : 392-7641/FAX : 313-2582